그늘진 이웃에 자비와 지혜 법등 밝힙시다

97년 6월 시작 총 92,228구좌 돌파
군·양로원등 1,152곳에 '법' 배달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따사로운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입니다. 남도땅에는 벚꽃을 비롯한 봄꽃들이 활짝 펴 겨우내 움추렸던 중생들의 마음을 환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며 봄을 맞이하는 행복감에 젖어 있을 이 시간에도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은 아직도 추운 겨울입니다 소외된 이웃과 우리사회를 지키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신문보내기 법보시 운동에 동참합시다.

신문보내기 법보시는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이런 취지로 97년 6월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달되기 쉽지 않은 군부대나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및 해외교민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문 보내기 법보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구좌 1천원으로 동참하는 신문보내기 법보시 운동은 동참 시주자에게는 보시 공덕 가운데 으뜸인 법보시 공덕을 짓게 하고, 시혜자에게는 귀한 부처님법을 만나는 인연공덕을 짓게 합니다. 신문 법보시 운동이 확산되면서 총 9만2천2백28구좌에 전국 1천여 불자들이 동참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현재 현대불교신문은 군법당(215곳), 교도소·교정청(73곳), 구치소·감호소(21곳), 소년원(18곳), 양로당(25곳), 아동복지시설(45곳), 장애인복지시설(20곳), 청소년복지시설(27곳), 사회복지기관(221곳), 불교병원(16곳), 경승실(257곳) 등 총 1,152개 시설에 매주 1,500부의 신문을 법보시해 현재까지 총 22만5천부가 발송되었습니다.

법보시 후원자 3백명에게는 창간호부터 지난해까지 발행한 '현대불교'를 담은 '창간 5주년 기념 CD-ROM'을 발송해 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 동참하세요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군부대 경찰서 교도소에 '부처님 말씀을'

'현대불교'는 창간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월 1천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하여 매주 1천5백 여부의 신문이 부처님의 손길이 되어 지혜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의 공덕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서 이르시기를 "사구게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은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신 것입니다.

▷동참방법 : 매월 또는 수시로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온라인 입금
▷자동이체 계좌번호(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06-01-0783-830	농 협 053-01-236053
한빛은행 082-090001-13-701	신한은행 324-05-007-450
외환은행 150-13-12902-6	뱅크라인 50-01-124-050
서울은행 15501-2269115	제일은행 100-20-560799
조흥은행 390-01-056471	기업은행 024-022451-04-012
하나은행 111-21644-00104	한미은행 100-51057-249
주택은행 504537-01-000064	평화은행 052-25-0001-512

▷참여방법 : 아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자동이체 및 온라인 입금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은행에 가셔서 위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셔도 됩니다.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직접 정하셔도 됩니다.
▷문 의 처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대표), (02)737-0090(직통)

법보시 동참 현황

구 분		발송처	보시부수	총보시부수
군부대	군법당	215	274	41,000
	국군병원	18	50	7,500
교화기관	교도소·교정청	73	173	25,950
	구치소·감호소	21	79	11,850
	소년원·감별소	18	18	2,700
복지단체	양로당	25	25	3,750
	아동복지	45	45	6,750
	장애인복지	20	20	3,000
	청소년복지	27	27	4,050
	사회복지기관	221	221	33,150
	불교병원	16	68	10,200
경찰	경승실	257	261	39,150
	경찰병원	2	6	900
지정 법보시	단체	96	135	20,250
	개인	98	98	14,700
전 체		1,152	1,500	225,000부 발송

◇군부대, 병원, 교도소 등 소중한 이웃들에게 보내는 '1구좌 1천원 법보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사진은 신수회 주최로 열린 법보시 기금마련 하루 찻집에서 원성스님이 자신의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현대불교 법보시 불자 인터뷰

"호국불심 되살아났으면…"

비행기서 만난 군인에 권유

조경자 보살

"부산으로 내려가는 비행기 안에서 옆에 타고 있던 군인에게 현대불교신문을 건네 주며 부대 주소를 적은 것이 법보시를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98년 9월부터 매달 법보시 후원을 꾸준히 해온 조경자씨(60).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면 항상 현대불교신문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며 읽는다는 조씨가 법보시 후원을 할 주인공인 군인을 만난 것은 2년전 부산행 비행기안.

조씨가 신문을 읽고 있자 옆에 타고 있던 그 청년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조씨를 쳐다보았다. 비행기 안에서 종교신문을 보는 조씨가 생소하게 느껴진 것이 그 이유였다.

"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을 잡고 절에 갔지만 고모부가 목사가 된 이후에는 고모부의 끈질긴 선교로 개신교를 믿게 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자신은 불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해 제가 신문을 보내줄테니 주소를 적어 달라고 하니까 좋아했지요."

집에 돌아온 즉시 조씨는 그 청년이 가르쳐 준 주소로 현대불교신문을 신청해 보내줬다. 또 포교의 황금어장인 군불교가 활성화되야 불교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씨는 더많은 군불자들이 신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법보시 후원'에 동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법당 지는 것만이 불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조씨는 "포교의 사각지대에 불교를 접할 수 있는 책자나 신문을 법보시하는 것도 큰 포교불사란 자부심으로 후원하고 있다"며 여력이 있는 한 꾸준히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움준다는 생각에 힘솟아"

야채장사하며 후원 앞장

지명심 보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의 작은 정성으로 나마 그들이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춘천 중앙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며 지난해부터 법보시 후원에 동참해 온 지명심보살(63). 20여년 동안 홍천 수타사에 다니며 불심을 돈독히 해온 지명심보살은 2년전까지만 해도 한글도 못읽는 속칭 까막눈이었다. 시민단체에서 마련한 무료 한글교실을 통해 한글을 가까스로 깨우친 지명심보살은 법당에 비치된 현대불교신문을 한글교재로 삼았다.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불교공부와 한글공부를 동시에 한 것이다.

"한글을 깨우친 기쁨에 빠져 신문기사를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읽고 있던 중 어려운 이웃들에게 법보시 후원을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평소 가난한 살림이지만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부터 지명심보살은 교통비를 아껴가며 법보시 후원자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자식들의 도움없이 자신이 번 돈으로 매달 후원을 계속하고 싶다는 지명심보살은 좀더 많은 이들에게 후원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시장사람들과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도 법보시를 권유한다는 지명심보살은 "평생 도움을 받고만 살았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절로 힘이 솟는다"며 "보시의 진정한 공덕은 나눔 그 자체에 있는 것 같다"고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현대불교를 받아보고

좌절한 인생에 다가온 한줄기 빛

인천에서 온 편지

저는 한때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수감된 수인입니다. 항상 신문을 받을 때마다 사회의 관심 밖에 있는 이곳까지 현대불교신문을 보내주시는 이름 모를 불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현재는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저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안겨준 현대불교신문과 법보시하신 분들 덕분에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절망에 빠졌을 때 조용히 다가온 한줄기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매주 전달되는 현대불교신문을 받아보며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보다 더 고통스럽게 사시는 분들에게 지금은 조금도 도움을 줄 수 없는 몸이지만, 악업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면 지금까지 받아온 많은 분들의 따뜻한 사랑을 꼭 회향해야겠다고 발원하고 있습니다.

이원식〈인천구치소〉

자신감 줘 힘든 군생활 쉽게 적응

연천에서 온 편지

저는 군에 입대한 지 8개월째 되는 군인입니다. 처음 군생활을 시작할 때만 해도 별다른 고생 한번 않고 살았던 탓에 군생활 적응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방황도 많이 했었고 탈영도 몇번이나 결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연히 연대 법당에서 보게된 현대불교신문을 보고 부처님의 진리에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시간만 나면 연대 법당에서 혼자 기도도 드리며 불서도 읽을 만큼 불교와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의지처가 생기다 보니 힘든 상황에 닥쳐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두가 현대불교신문을 무주상 보시해 주시는 불자님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 깊은 인연을 맺어 보람있는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법보시 후원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민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IMF 실직 노숙자에 따뜻한 위안

광주에서 온 편지

새봄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저는 목포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던 평범한 셀러리맨이었는데 지난해 경제 한파가 밀어닥치면서 순식간에 거리로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갑자기 닥친 불행으로 인해 실의에 빠졌고 점점 술로 하루하루를 소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들어갈 면목이 없어 노숙자 쉼터에서 구직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던 중 접하게 된 현대불교신문은 저에게 많은 위안이 됐습니다. 게다가 더욱더 감동적인 것은 이 신문이 이름 모를 '1천원 법보시 후원자'들에 의해 우리 손으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빨리 일할 기회를 얻게 된다면 갑자기 불어 닥친 고난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이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 운동'에 꼭 동참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최재호〈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교도소서 만난 참된 삶의 나침반

원주에서 온 편지

요즈음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기운이 교도소 담장 너머에서부터 밀려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원주교도소 불자님들은 현대불교신문 덕택에 지난 겨울을 평온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1천원 법보시 후원자'들이 보내주신 현대불교신문을 서로 돌려 읽으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우리들에게 밝은 지혜와 참된 삶의 지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자님들은 아직도 따스한 마음을 잃지 않고 내일의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길 갈망하면서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준 현대불교신문사의 고마움에 감읍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정철주〈원주교도소 불교반장〉

용기와 희망 얻고 장애 설움 이겨

대전에서 온 편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번도 빠짐없이 신문을 보내 주신 '법보시 후원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 항상 목발에 의지해야 하는 신체 장애자입니다. 사춘기 때부터 친구들과 다른 신체 여건 때문에 심한 열등감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성장해서는 마땅한 직장이 없어 사회복지시설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아무런 희망 없이 지내왔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읽게 된 현대불교신문은 무종교자인던 제 자신을 불자로 바꿔 놓았습니다. 특히 대행스님의 마음법에 관한 법문은 큰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우연히 접하게 된 가르침일지라도 그것이 마음 밭에 뿌려지면, 커다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진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 귀중한 신문을 보고 나서 매주 모아 부산의 복지시설에 법보시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대전시 유성구〉

법보시 후원자 명단

간종흠 강갑순 강경중 강말숙 강미영 강민점 김연옥 김연자 김연희 김영란 김영만 김영배
강병현 강복복지관 강성욱 강숙희 강순영 강산옥 김영삼 김영숙 김영순 김영식 김영아 김영자
강신택 강영신 강옥구 강은염 강인성 강인숙 김영희 김 옥 김옥점 김옥련 김외선 김용구
강장옥 강정기 강정숙 강정화 강점희 강종남 김용범 김용준 김원순 김원용 김원우 김유학
강지숙 강춘계 강태근 강태복 강현숙 강황진 김윤선 김윤중 김윤환 김윤희 김의식 김인성
경 정 경순자 고계환 고광진 고덕현 고순진 김인숙 김인희 김일동 김자경 김정란 김정선
고영채 고영이 고용순 고은주 고재선 고필선 김정숙 김정옥 김정은 김정이 김정자 김정주
고현사 공명근 구진모 구필회 권갑남 권계순 김정희 김제철 김중미 김종애 김종옥 김종일
권동희 권미경 권복연 권복자 권복한 권성행 김주곤 김주원 김준만 김준모 김준엽 김준형
권 순 권순혁 권연지 권영숙 권영현 권오석 김준희 김지영 김지헌 김창수 김철수 김춘호
권오용 권오진 권옥숙 권은경 권정숙 권진순 김춘화 김춘희 김치훈 김태현 김태훈 김택곤
권차순 권춘순 기현정 김경선 김경수 김경숙 김하나 김 헌 김형수 김현숙 김현창 김형철
김경애 김경열 김결옥 김정해 김경훈 김경희 김혜경 김혜숙 김 호 김호영
김광숙 김광순 김광태 김교안 김국중 김귀남 김호홍 김화남 김화수 김활수 김희남 김희수
김규정 김근삼 김근영 김금순 김기춘 김길운 김희순 나관숙 나숙희 나순옥 남성수 남성진
김남경 김남석 김남숙 김대현 김덕임 김덕자 남수경 남수미 남수진 남일우 남철수 남하자
김두영 김둘남 김복인 김평덕 김명옥 김명훈 남화자 노만호 노순남 노유택 노윤택 노진희
김명희 김문자 김미란 김미명 김미선 김미숙 노창순 노혜숙 덕성암 덕운화 덩형관 도옥희
김미순 김미정 김민옥 김범수 김병서 김병주 도재권 동사섭 류경훈 류봉수 류영란 류정남
김병철 김병훈 김복남 김봉운 김봉혜 김상덕 류정수 류조형 마정혜 마진호 명세장 모영희
김상필 김상분 김서분 김석순 김석용 김선남 목포지원 무명 문명순 문병기 문상철 문숙자
김성경 김성민 김성순 김성자 김성진 김성혜 문순조 문정강 문필금 문필수 문형주 문화자
김성희 김송자 김수영 김수희 김순경 김순남 민경주 민병용 민복순 민소영 민승자 민을식
김순녀 김순덕 김순련 김순식 김순옥 김순희 민하식 박강숙 박경남 박경녀 박경선 박경수
김승재 김승지 김식자 김신엽 김애란 김애리자 박경숙 박정애 박점화 박판수 박광용 박관호
김애자 김양순 김여경 김연득 김연봉 김연수 박구숙 박금숙 박기규 박남순 박남옥 박내순

박명희 박무순 박미경 박미정 박병묵 박봉주 송광옥 송규환 송미숙 송미애 송복희 송성의 이계선 이관형 이교재 이구자 이귀숙 이규만
박상규 박삼섭 박석열 박성례 박성수 박성진 송양숙 송인영 송정구 송필재 신경희 신기호 이규환 이금순 이금주 이기오 이기철 이남심
박세광 박수진 박숙경 박순덕 박순득 박승희 신미향 신미환 신복 순신상섭 신수호 신순애 이대섭 이덕의 이동기 이명규 이명수 이명순
박신영 박양님 박양임 박양자 박영애 박영우 신순희 신시균 신원민 신유진 신윤진 신재락 이명자 이묘연 이미경 이미나 이미애 이미자
박영준 박영철 박옥남 박용무 박용숙 박용자 신재철 신조현 신진임 신택건 신효용 신홍재 이번택 이범규 이병만 이병진 이보경 이봉순
박원규 박운기 박윤식 박은숙 박은주 박익형 심광업 심근희 심능희 심단희 심묘희 심범희 이봉우 이분순 이상란 이상옥 이상운 이선임
박재련 박재진 박정산 박정순 박정자 박정하 심보희 심성학 심안희 심원희 심일희 심춘자 이성재 이송자 이수자 이숙희 이순교 이순량
박제원 박종두 박주연 박주원 박준형 박준호 심향희 심희주 안성모 안순옥 안영선 안진후 이순옥 이순임 이순자 이순천 이순호 이순희
박진환 박찬연 박찬혜 박현혜 박철수 박춘자 양병덕 양세욱 양영애 양은숙 양의군 양점순 이숙숙 이숙은 이숙환 이신정 이 씨 이아리
박태규 박필원 박현순 박현주 박혜명 박혜숙 양정순 어종선 업남주 엄정임 영동포법회 오동규 이애자 이양희 이억수 이연규 이연옥 이영경
박혜정 박혜진 박화순 방금순 방명섭 방순학 오두환 오막순 오명자 오미환 오병현 오선희 이영숙 이영순 이영조 이영희 이오석 이옥색
배경숙 배동금 배병진 배성호 배순자 배연수 오세철 오송준 오순자 오승종 오영희 오주종 이옥영 이옥형 이옥희 이우승 이운자 이유순
배춘자 백상준 백성옥 백양심 백유선 백현기 오주희 오진희 오창일 오창희 오한승 오현자 이윤옥 이은숙 이은주 이은진 이의남 이익수
백혜원 법인스님 법현스님 변미자 부지원 사단5동 오형만 오형희 오희숙 한마음선원용신구법회 이인상 이임순 이장혁 이재국 이재윤 이재화
사랑방 상미옥 서경자 서귀연 서말자 서말희 용환웅 우경애 우금식 우상용 울산지원 울산한 이점자 이정녀 이정례 이정수 이정숙 이정순
서명선 서병학 서봉순 서부웅 서삼조 서옥경 마음선원 원정옥 유강수 유광수 유금자 유미양 이정자 이정혜 이정희 이종돈 이종락 이종석
서울은행 서윤아 서정숙 서 준 서 진 서희선 유선재 유양상 유은경 유인묵 유재춘 유정연 이종철 이준만 이준석 이준재 이준희 이중근
서춘건 서충우 서형관 석혜월 선유진 선장재 유정용 유춘자 육심희 윤경애 윤경희 윤기수 이지현 이지용 이지형 이진경 이진수 이진영
선정호 선현자 설갑문 설정수 설지석 성동환 윤미희 윤병창 윤병혜 윤상문 윤석범 윤 성 이진철 이창운 이창하 이창호 이철주 이태우
성묘경 성민자 성재영 성필제 성호승 소진업 윤옥희 윤인자 윤재경 윤제학 윤준상 윤지용 이태인 이태호 이태훈 이태희 이판순 이필순
손관자 손금화 손미숙 손봉희 손상률 손율선 윤지은 윤참섭 윤태원 윤향숙 은경애 이강희 이한득 이한희 이항미 이현숙 이현실 이현안
손인아 손인희 손정숙 손진일 손혜숙 손화자 이경민 이경숙 이경아 이경원 이경인 이경자 이현양 이현주 이현호 이혜란 이혜숙 이혜옥

이호진 이화숙 이화영 이효순 익명 인천신행회 차수항 차용옥 차정순 차현주 차희자 채희순
임경희 임기남 임명옥 임명진 임문숙 임선원 천재경 천현숙 천화조 청주교도소 최경락 최경자
임소연 임옥재 임완숙 임우식 임재순 임정숙 최경진 최광례 최금철 최만례 최명희 최범순
임종미 임채임 임춘심 임해순 임형대 임홍민 최병언 최병조 최복내 최복순 최상철 최서윤
임희자 장금강 장 미 장미옥 장 영 장 점 장 정 최석원 최선영 최성근 최성대 최성휴 최수현
장정가족 장점숙 장점자 장정희 장축자 장혜기 최심형 최영도 최영명 최영봉 최영숙 최윤정
전갑임 전갑임 전계연 전규백 전류정 전병임 최은희 최인숙 최재두 최재철 최재혁 최정근
전복순 전삼우 전순남 전순자 전승현 전연석 최정기 최정문 최정희 최주현 최행선 최현주
전연택 전영자 전위자 전유정 전인성 전인염 최현선 최호자 최희원 추철희 충남대교수불자회
전인호 전정순 전정애 전정희 전진희 전현수 타행납부 태국한마음지원 표혜명 하금자 하명자
전현진 정건재 정계영 정구순 정금관 정금란 하석남 하순임 하흥용 한경규 한국여성불교
정대자 정동한 정모아 정무영 정문식 정미경 한기선 한마음불교사랑방 한마음선림 한마음선
정미련 정미향 정미형 정민아 정복순 정분선 원보시람 한마음선원봉사모임 한마음선도신도
정삼순 정상열 정숙남 정숙점 정순자 정연경 봉불용 한마음선원부산신도회 한명숙 한미순
정연동 정연봉 정연석 정연태 정연희 정영기 한병소 한상현 한숙희 한순자 한아름 한양지
정영신 정옥녀 정옥찬 정윤옥 정윤채 정은경 한임련 한철희 한춘영 한태희 한효심 함광점
정인순 정점오 정정국 정순정 정자정 정희정 함기석 함명익 함상수 함영숙 함지윤 허명희
정 희 정진욱 정필수 정필순 정학선 정해정 허상임 허석남 허선숙 허성국 허수자 허승자
정혜택 정현동 정훈채 조경자 조귀자 조남섭 허의숙 허재승 허재영 허정남 허정훈 허종환
조남주 조명식 조미란 조미숙 조미순 조민우 허찬웅 허학연 허희숙 현대불교신문지원일동
조분옥 조상호 조승우 조약식 조양자 조영숙 현불회 현수전 현월스님 현추월 혜월당 홍기장
조옥희 조원희 조유복 조윤숙 조윤호 조은미 홍명숙 홍민자 홍소순 홍순아 홍영순 홍영호
조인자 조정현 조철제 조혜숙 조혜연 주영란 홍인자 황금철 황기용 황영분 황옥란 황옥석
주우순 주인공 지순임 지연옥 지유미 지청인 황옥순 황점숙 황정옥 황찬염
진경심 진경수 진광현 진명숙 진영희 진옥례
진옥상 진원중 진재엽 진재용 차동호 차상환

※총9938명이 동참 92,228구좌를 보시했습니다.